

[아시아경제] “풀뿌리 산학연(産學研)이 중소기업 살린다” (2012.11.15)

[아시아경제] “풀뿌리 산학연(産學研)이 중소기업 살린다”

‘풀뿌리 산학연(産學研)’ ‘산학연은 중소기업정책의 핵심’ ‘기술혁신을 통한 강한 중소기업’ ‘융합기술 및 녹색산업 발전’ ‘민간조직의 활력 적극 활용’ ‘일자리 창출’....

김광선 (사)한국산학연합회 회장(59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, 기계공학박사)이 자주 쓰는 화두들이다. 우리 경제에서 산학연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다. 뿌리가 튼실한 나무가 잘 자라듯 산업계 풀뿌리인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과 나라경제도 원활히 돌아간다는 논리다.

건배사 때 등장하는 ‘9988’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말해준다. 국내 사업체수의 99%, 전체근로자의 88%가 중소기업이 차지한다는 것이다. 여기에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들까지 어우러지면 그 힘은 엄청나다는 게 김 회장의 시각이다.

김 회장은 기술고시(13 회) 출신으로 공직(국방부), 기업체 간부(삼성항공), 대학교수(기획처장, 대학원장, 연구소장) 등 산학연관의 경력을 가진 ‘맞춤형 산학연전문가’로 통한다. 반도체장비재료국제협회(SEMI) 표준화위원회 한국대표면서 미국 캔자스대 최우수동문으로 동양인 최초로 대학 명예의 전당에 올라 눈길을 끈다.

이런 이력의 김 회장이 2009년 2월 산학연합회 사령탑에 앉은 지 4년째 ‘산학연 전도사’로 나라 안팎을 뛰면서 산학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회

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. 김 회장은 “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협회 존재가치와 위상이 돋보인다”고 강조했다. 그는 이를 계기로 산학연의 중심축인 협회가 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내실을 다지고 있다. 대전시 둔산동 한국산학연합회 집무실에서 김 회장을 만나 협회 발자취와 현주소, 청사진을 들어봤다.

“한국산학연합회는 중소기업청 연구개발(R&D) 예산을 받는 20여 기관 중 3번째로 크다. 전국 중소기업 풀뿌리사업발전을 위한 국내 유일의 탄탄한 산학연협력네트워크를 갖고 있다. 그 만큼 역할이 크고 하는 일도 많다. 물론 국제적인 대화·협력채널도 있다.” 김 회장은 기업, 대학, 연구기관을 회원으로 둔 협회가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를 위해 이들과 ‘편안한 동반자적 관계’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.

◆변신을 거듭해온 협회 발자취와 성과=협회는 자생적 민간조직이다.

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1993년 9월 ‘산학연 컨소시엄 전국대학교협의회’를 출범시켰다. 2009년 2월 김 회장이 취임하면서 ‘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’로 간판을 바꿔달았다. 그전엔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고 조직도 단출했다.

협회가 하는 일은 ①산학연 공동기술개발 ②기업부설연구소 지원 ③ 연구장비 공동이용 ④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⑤공정혁신지원으로 김 회장 취임 후 성장을 거듭했다. 이 중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은 20년째 이어지는 정부 R&D 사업의 최장수프로그램이다.

협회가 전국 산학연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9년 1053억원에서 올해는 1523억원으로 늘었다. 해마다 17~18%는 셈이다. 조직 또한 확 커졌다. 2009년 3월 16명이었던 임직원이 31명으로, 357명이었던 회원(개인·기관) 수가 486명으로, 지원기업 수는 한해 2000개에서 4000개로 불었다.

김 회장은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인증제 신설,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공간 확보 의무화규정 마련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. 그는 “지난해 초 산학연협회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역풀뿌리간담회를 열어 각계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”며 “백서성격인 정책총서 발간, 산학연협력사업의 정책홍보지 ‘with 산학연’(계간지) 창간도 같은 맥락”이라고 설명했다. 성과분석, 만족도조사로 사업발전방향을 찾고 업무효율도 높였다. 제안·토론·단합의 자리인 산학연포럼, 산학연희망플러스도 펼쳤다.

김 회장은 뭇보다도 회원들과의 소통, 자율, 민주적인 협회운영에 힘썼다. 혁신과 변화를 통한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, 풀뿌리이론을 접목한 밑(지방)에서 위(중앙)로의 상생발전을 꾀하는 분위기를 이끌었다. 그는 “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커가는 것”이라며 “산학연은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이자 필수”라고 강조했다.

◆다양해진 협회사업과 공정한 사업평가=김 회장은 협회를 키우기 위해선 하는 일이 많아야한다며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. 새로 개발했거나 보완한 게 많다.

정부위탁사업의 경우 2009 년엔 4 개였으나 지금은 7 개다.

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,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,
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, 기술연계플랫폼구축사업,
중소기업기술멘토링사업, 공정혁신지원사업, 한중(韓中)산학연
녹색협력지원사업이 그것이다. 참여기업, 주관기관 수가 늘고
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한 제품매출액도 증가했다.

협회 사업평가부문에다 업무비중을 높였다. 사무국 공간과는 따로
전용평가장을 뒀 산학연협력사업의 모든 과정(선정, 중간, 완료)의 평가를
전산화·시스템화 시켰다.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돼
동참하고 있다. 평가가 제대로 돼야 지원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
사업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소신이다.

◆최우수사업 정부평가와 민간조직의 우월성=협회가 하는

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부처 평가등급은 대부분 '상위권'이다.
지역발전위원회 평가 최우수(2010 년)·우수(2011 년), 기획재정부 평가
우수(2008 년), 정부부처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
기획예산처의 국가발전영향평가 1 위(2007 년), 과학기술부의 특정평가
3 위(2007 년)다. 한마디로 올 A 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.

게다가 민간조직이어서 조직운영, 시설지원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전혀
받지 않는다. 해마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준정부기관
사업평가들이 '보통'의 성적표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.

김 회장은 그 요인을 민간조직의 활력과 우월성 때문으로 설명한다.

“정부사업을 받아서 하는 다른 준정부기관은 관료화되기 쉽고 무사안일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산학연합회는 다르다. 민간조직이어서 역동성 있고 지원 대상기관을 갑, 을 관계가 아닌 친구와 가족으로 대한다.” 김 회장은 사회적 화두인 ‘소통’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. 그는 “모범사례로 자리 잡은 산학연합력사업처럼 각종 정부사업은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일 땐 과감히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. 이는 세계적 흐름인 ‘작은 정부’ 만들기와도 맥이 통한다”고 주장했다.

◆2013년에 성년을 맞는 협회 청사진=한국산학연합회는 내년 9월이면 창립 20주년이 된다. 이에 따라 협회는 여러 행사들을 검토 중이다. ‘산학연합회 20년사’ 등 발자취를 정리한 자료집을 펴내고 기념식, 축하행사, 이벤트도 연다.

김 회장은 “협회가 성년을 맞는 2013년은 의미 있는 해”라며 “20주년 행사준비팀을 뒤 산학연 회원들과 중소기업청이 뭉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생각”이라고 말했다. 그는 “기념행사 땀 협회 전임 회장단, 전임 중기청 청장·차장과 일본, 중국 등 MOU를 맺은 외국기관·단체 관계자들도 초대할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김광선(앞줄 왼쪽) 한국산학연합회장과 쉬즈찌엔 중국산학연합추진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가운데 두 나라 관계자들이 뒤에 서서 포즈를 잡고 있다. (추가 설명: 양국 산학연의 교량 역할을 한 다오지중화 (한국)의 양필승 대표가 양국 산학연 회장 사이에 서서 포즈를 잡고 있다.)

“글로벌 산학연연맹 결성 추진”

김광선 회장, 산학연 국제화 앞장...독립국가연합(CIS), 일본, 중국 등과
MOU

김광선 한국산학연합회 회장은 1년에 한 달쯤 외국출장을 간다.

지구촌시대를 맞아 끈끈한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. 대학교수이자 협회장으로서 지구촌 사람들과 만나 산학연 발전을 논의하고 도움도 받는다. 협회업무와 강의, 연구, 저술에 보탬이 될 자료를 주고받고 인맥도 쌓는다.

김 회장은 2009년 6월 독립국가연합(CIS) 나라들과의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R&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와도

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는 등 산학연발전의 국제화에 시동을 걸었다.

이어 2010년 10월 일본의 대표적 산학연협력기관인

TAMA(수도권지역산업 활성화)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지난해 8월 중국 최고명문대학이자 시진핑 등 주요지도자들을 배출한

칭와대가 세운 다오지중화유한공사, 창조형국가건설전략추진위원회,

산동자본자산운영관리유한공사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의

협력징검다리를 닦았다. 올 들어선 중국과 산학연협력체계를 더 강화시켰다.

김 회장은 지난달 26일 북경에서 쉬즈찌안(徐志堅)

중국산학연합작추진회장과 산학연관 협력공조방안 마련에 따른 MOU를

체결하고 친목도 다졌다.

양해각서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확대, 산업체 인력교류, 중소기업

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. 특히 ▲산학연간

상호협력과 교류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▲산학연간

공동연구개발 확대 ▲중소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업발전 협력

▲회원기관을 포함한 두 나라 발전을 위한 상호관심사 협력

▲녹색공학(Green Engineering), 환경경영(Eco-Management)을 목적으로 한

친환경제조 및 산업교류협력에 힘쓴다.

김 회장은 “중국산학연합작추진회와의 MOU로 우리를 중심으로 중국, 일본,

CIS 국가까지 아우르는 ‘동북아 국제산학연협력카르텔’이 생기게 됐다”고

말했다. 그는 “동북아의 산학연협력체계가 더 확대돼 ‘글로벌 산학연연맹’

결성으로 발전하고 각국 산학연 정보·인력교류, 국제산학연포럼 개최,

국제산학협력기금조성을 위한 협력체로 커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2111410341024537&nvr=Y>